

六大茶類에 대하여 - 제 2보 고려시대 -

金明培

前 崇義女子專門大學 教養學科
(1989년 1월 19일 접수)

On the Six Kinds of Teas - Part II Koryo Dynasty -

Myong-Bae Kim

The former post, Soong Eui Women's Junior College

(Received January 19, 1989)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six kinds of teas in Koryo dynasty and tea-making in domestic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were certified as follows.

1. Lump-tea was introduced and then also produced in domestic.
2. It is assumed that scented-tea was made from white-tea.
3. It is assumed that strong-tea and large tea were blue tea.
4. Leap-tea, green-tea were drunken at the end of Koryo dynasty.

I. 序 論

2) 高麗時代

高麗時代에는 蒸靑의 研靑茶, 炒靑의 葉茶, 白茶에 의한 香茶, 醞茶와 大茶와 같은 靑茶의 風習도 傳來된 것 같다.

그리고 宋나라 徽宗皇帝의 『大觀茶論』,⁵⁹⁾ 熊番의 『宣和北苑貢茶錄』⁶⁰⁾ 등에 보이는 白茶와 靑茶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II. 本 論

(1) 研靑茶

研靑茶에는 綠色茶葉으로 만든 것과 白色茶葉(白茶)으로 만든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가) 綠色茶葉으로 만든 研靑茶

綠色茶葉으로 만든 研靑茶도 달이면 白色茶葉으로 만든 研靑茶를 달인 것과 마찬가지로 茶湯은 乳白色이 된다.

그런것이 시루에서 썬낸 茶葉을 小型 壓搾機에 올려 놓고서는 水分을 짜내고, 大型 壓搾機에 올려 놓고서는 茶膏(葉綠素)를 짜내기 때문이다.⁶¹⁾

그리고 高麗의 研靑茶로 달인 茶湯이 宋元의 茶湯과 같았는가를 判別할 수 있는 것이 「乳花」의 有無이다.

「乳花」란 茶甌에 熟水와 末茶를 넣고 茶匙나 茶筴으로 擊拂함으로써 形成되는 乳液狀의 거품(花)을 가리킨다.

「茶事에 乳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은 宋代부터」⁶²⁾가 아니라 唐末부터이다.

卽, 唐나라 末期에 侍御史를 지낸 崔珣이 읊은 茶詩에 따르면, 懿宗의 咸通年間(860~873) 무렵에는 茶甌에 末茶를 넣은 다음, 銀瓶으로 끓인 물을 붓고 茶匙(刀圭로 推定)로 擊拂하는 點茶法이 있었는데 「乳花」가 보인다.

美人嘗茶行

雲瓶枕落泥春 玉郎爲碾瑟瑟塵
閑教鸚鵡啄窓響 和嬌扶起濃睡人
銀瓶貯泉水一掬 松雨聲來乳花熟

朱唇啜破綠雲詩 咽入香喉爽紅玉
 明眸漸開橫秋水 手撥絲簧醉心起
 臺前却坐推金筍 不語思量夢中事⁶³⁾

唐代에 陸羽의 『茶經』에 보이는 餅茶의 煮茶法 以外에 點茶法이 있었던 것은 研膏茶가 生産되었기 때문이다.

卽, 唐나라의 楊華가 856년에 지은 『膳夫經手錄』에는 睦州鳩坑茶 味薄 研膏絕勝霍山者⁶⁴⁾

라고 적혀 있으므로, 安徽省의 霍山에서 研膏茶가 生産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宋나라의 研膏茶를 點茶한 湯面에 乳花가 形成된 事例는 蘇軾(1036~1101)이 읊은 茶詩에 보인다.

送南屏謙師

道入曉出南屏山 來試點茶三昧手
 忽驚午盞免毛斑 打作春癡鷄兒酒
 天臺乳花世不見 玉川風腋今安有
 先生有意續茶經 會使老謙名不朽⁶⁵⁾

그리고 高麗의 경우는 李齊賢(1287~1367)이 읊은 茶詩에 乳花가 보인다.

松廣和尚寄惠新茗 順筆亂道寄呈丈下
 霜林虬卵寄曾先 春焙雀舌分亦屢
 師雖念舊示不忘 我自無効愧多取
 數間老屋草生庭 六月愁霖泥滿路
 忽驚剝啄送筠籠 又獲芳鮮逾玉脣
 香清會摘火前春 色嫩尚含林下露
 風飄羅石桃松籟鳴 轉轉鬚鬚乳花吐⁶⁶⁾

그런데 위에서 「眩轉鬚鬚乳花吐」라는 詩句를 「빙글빙글 도는 질그릇 단지의 물이 적빛 불꽃을 토한다」⁶⁷⁾고 한다거나 「자기 찻잔에 도는 무늬 꽃망울을 토한다」⁶⁸⁾고 읊었다면 「乳花」(乳液狀의 거품)의 眞意가 屈折되고 만다.

그리고 위에 나오는 「雀舌」를 理由로 李齊賢이 松廣和尚으로부터 받은 茶가 葉茶라는 見解가 있다.

그 첫번째 理由로 雀舌·草茶·散茶는 葉茶의 材料라는 것이다.⁶⁹⁾

그러나 雀舌이란 熊蕃의 『宣和北苑貢茶錄』에 보이는 雀舌 鷹爪⁷⁰⁾처럼 茶葉의 생김새를 形容한 말일 뿐, 오늘날 市販되는 것처럼 葉茶로 加工된 雀舌茶가 아니라, 研膏茶의 加工原料인 것이다.

그와같은 好例가 蘇軾이 읊은 다음의 茶詩이다.

怡然以垂雲新茶見餉 報以大龍團 仍戲作小詩
 妙供來香積 珍茶具大官
 揀芽分雀舌 賜茗出龍團⁷¹⁾

위에서 雀舌은 研膏茶인 龍團茶의 加工原料로 使用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散茶는 葉茶로 볼 수 있으나 草茶는 加工된 葉茶의 材料가 아니라, 木茶의 反對語로서 苗茶를 가리킨다.⁷²⁾

雀舌을 葉茶라고 하는 두번째의 主張에 따르면 李齊賢의 詩로써 葉茶인 雀舌茶를 藏茶具인 대바구니에 담았음을 알겠고, 이 葉茶(雀舌茶)를 葉茶用의 茶蓋인 茶甌로 마셨다는 것을 傍證하는 資料가 元天錫(1330~?)이 읊은 다음의 茶詩라는 것이다.

반가운 서울 소식 시골집에 이르니 惠然京信到林家
 새로 봉한 작설차라네 細草新封雀舌茶
 식후의 한잔 차 그맛 더욱 좋고 食罷一甌偏有味
 취한 뒤의 석잔은 더욱 자랑할 만하다오 醉餘三椀最堪誇⁷³⁾

그러나 李齊賢의 詩句인 「雀舌」이 葉茶가 아니고, 「乳花」가 形成되는 研膏茶였다는 것은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다.

만약 그것이 葉茶였다면 六月 장마의 濕氣 때문에 대바구니에 담긴 茶는 變質되고 말았을 것이다.⁷⁴⁾

그리고 元天錫이 읊은 「아우인 이선차 사백이 준 차에 사례하다」(謝弟李宣差師伯惠茶)에 나오는 「雀舌茶」도 葉茶가 아닌 研膏茶이다.

왜냐하면 위 사람은 元天錫의 詩句인 「細草新封雀舌茶」에서 茶의 種類를 판가름하는 「細草」를 度外視한 翻譯文(새로 봉한 작설차라네)을 引用⁷⁵⁾하였기 때문에 「가는 풀(細草)로 새로 봉할 수 있는 茶란 葉(散)茶가 아닌 固形茶였다」⁷⁶⁾는 것을 물랐던 탓이다.

한편, 「茶甌나 茶椀(盃·碗)이 葉茶蓋」이 아니라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李齊賢의 茶詩에 보이는 「鬚鬚」와 元天錫의 茶詩에 보이는 「一甌」以外에 李奎報가 읊은 孺茶(研膏茶) 詩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다.

房壯元衍寶見和次韻答之

雖老猶堪手汲泉 一甌卽是參禪始⁷⁷⁾

(나) 白色茶葉으로 만든 研膏茶

忠烈王 18년(1292) 10월에는 元나라에 歸化한 高麗人의 後孫으로서 遼陽行省平章政事인 洪君祥이 歸國할 때 高麗의 洪誥將軍을 元나라에 同行시켜 香茶와 木果를 바쳤다.⁷⁸⁾

그런데 이 香茶는 麗末鮮初의 茶家인 卞季良(1369~1430)의 茶詩에도 보인다.

西京使相容軒李公惠石銚以詩答之
 香茶活火煮山泉 一椀才傾骨欲仙
 安得家家分此味 坐令天下洗茶禪⁷⁹⁾

高麗時代의 香茶製茶法이 적힌 史料가 없기 때문에 香茶의 製茶法을 分明히 알 수는 없으나, 同時代에 元나라의 飲膳太醫인 忽思慧(Khosukhi?)⁸⁰⁾가 엮은 『飲膳正要』(1330年)에 보이는 香茶의 製茶法이 準用되었을 것으로 類推된다.

香茶 白茶一袋 龍腦成片者三錢 百藥前半錢 麝香二錢 同研細 用香粳米熬成粥和成劑印作餅⁸¹⁾

萬若 香茶의 原料配合이 이와 같았다면 高麗에서도 것처럼 稀貴한 白茶樹가 栽培되었을 것으로 類推된다.

(다) 靑茶

高麗時代에 靑茶가 加工 利用된 痕跡은 없으나 熟成(Ripening)茶의 元祖로서 醱茶와 大茶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① 醱茶

修禪社(松廣寺)의 第六世인 圓鑑國師(1226~1292)가 읊은 茶偈에는 醱茶가 보인다.⁸²⁾

次韻答蘭松禪師印公

庭空松子落 室靜篆煙斜
何以療飢渴 香蔬與醱茶

病中言志

醱茗聊澆渴 香蔬足療飢
箇中深有味 且喜沒人知

그런데 다른 茶名과 마찬가지로 醱茶도 中國의 宋나라에서 傳來된 것이다.

예를 들면 宋나라 哲宗의 元祐 4年(1089) 7月 3日부터 元祐 6年(1091) 3月 初旬까지 和杭州로 있던 蘇軾이 杭州의 古寺를 遊覽하면서 하루에 醱茶 七椀을 마시고 戲弄삼아 읊은 孔平仲의 茶詩에 醱茶가 보인다.⁸³⁾

飲醱茶戲書勤書壁

示病維摩元不病 在家靈運已忘家
何須魏帝一丸藥 且盡盧同七椀茶

이밖에 宋나라의 道原이 印度의 摩訶迦葉을 第一祖로 하고 中國의 弘忍을 第三十二祖로 하여 禪門諸師의 傳記를 集大成한 『景德傳燈錄』(1004年)에도 夾山禪師가 醱茶를 읊은 茶偈가 보인다.

醱茶三五椀 意在鑿頭邊

또 『指月錄』에도 仰山禪師가 醱茶를 읊은 茶偈가 보인다.

醱茶三兩碗 意在鑿頭邊

그런데 「武夷岩茶는 醱茶(醱은 진하다는 뜻)라고 불리는 바 이것은 烏龍茶의 元祖」⁸⁴⁾라고 하며, 「烏龍茶는 宋代에 帝王에게 貢進한 上納茶였던 龍團茶나 鳳團

茶에서 變化된 것으로서 일찌기 유럽에 전해져 茶類의 一種이 된 것이다.⁸⁵⁾

龍團鳳餅茶를 烏龍茶의 元祖로 보는 까닭은 研膏茶의 茶湯이 乳白色이 되는 것이 製茶工程에서 물을 使用하여 空氣와 接觸시키지 않고 熱이 오르지 않게 하여 熟成으로 빛깔이 진하게 되는 것을 防止하기 때문인데,⁸⁶⁾ 烏龍茶로 되기 以前의 武夷茶도 熟成茶로 判斷되기 때문이다.⁸⁷⁾

武夷茶는 빛깔이 검고 신맛이 났는데⁸⁸⁾ 빛깔이 검은 점에서는 研膏茶와 같고,⁸⁹⁾ 맛에 있어서는 普洱餅茶의 獨特한 風味가 났다고도 한다.⁹⁰⁾

本來 「醱」字는 「초맛 준할 醱」이기 때문에 醱茶인 武夷茶에서 신맛이 났다는 것은 當然한 論理의 歸結이다. 그러므로 麗宋代에 마셨던 醱茶는 靑茶의 元祖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② 大茶

高麗時代에는 朝廷의 高官이 死亡하였을 때 購儀로 大茶를 下賜한 事例가 있었다.

崔承老 成宗八年卒 年六十三 王勳悼 下教褒其勲 德 贈大師 賻布一千匹 麵三百碩 粳米五百碩 乳香百斤 腦原茶二百角 大茶一十斤⁹¹⁾

徐熙 穆宗元年卒 年五十七 賻布千匹 麥三百石 米五百石 腦原茶二百角 大茶十斤 梅香三百兩 諡章威以禮葬之⁹²⁾

그런데 이 大茶를 「大國茶」(中國茶)라는 見解와 異차라는 見解도 있다.

첫째로 鮎貝房之進은 大茶에 관하여

…茶品을 大小로써 區別할 理도 없고 매우 이상한 名稱인데 나는 이것이 支那茶를 가리킨 것이라고 考定하고 있다. 왜냐하면 大는 옛날 方言으로 支那, 卽 大國의 大의 意味로서 支那物의 形容詞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支那物을 보통 唐糸, 唐冊, 唐板, 唐材 등 唐字를 붙여서 말하고 있는데 이 唐처럼 옛날에는 大를 쓰고 있다. …角이라 稱하지 않고 斤이라 稱하기 때문에 이 大茶도 末茶의 資料이다.⁹³⁾

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文一平은 이러한 鮎貝의 見解에 관하여

이 大茶에 對하여 어떤 學者는 大國茶 곧 唐茶로 解釋하였다. 그러나 文宗의 第四子인 大覺國師의 文集을 보면 宋僧 辯眞이 同國師에게 보낸 禮物中에 小茶 一百斤이라 적혀있다. 이로 推察한다면 前述한 大茶가 만드시 大國茶를 意味한 것이 아니고 當時 宋國에 이미 大茶 小茶의 名稱이 있었던 模樣

이다. 다만 이 大小茶에 관한 研究는 以後 機會로 미루기로 하고 茶故事는 너무나 支離하니까 이만하고 붓을 던진다.⁹⁴⁾(피어쓰기 一引用者)

라고 한 것처럼, 小茶라는 이름이 있으니 大茶가 반드시 大國茶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만은 確實하나, 大茶와 小茶의 뜻까지는 풀지를 못하였다.

어차피 文一平의 「茶故事」를 構成하는 茶論의 出典系譜를 別稿로써 다루겠지만, 위에서 「어떤 學者」란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茶故事」의 骨格이 된 「茶의 이야기(話)」를 쓴 鮎貝를 가리킨다.

그런데 大茶란 立夏 前後에 粗大한 茶葉을 따서 만든 研膏茶이고,⁹⁵⁾ 小茶란 穀雨 卽前에 小形 茶葉을 따서 만든 研膏茶였다.⁹⁶⁾

위에서 小茶는 鮮初의 學者인 徐居正(1420~1488)이 읊은 茶詩에 보인다.

夜吟

獨坐挑燈落盡花 旋聞街鼓已三擲
枯腸病後如雷吼 手切薑蔘點小茶⁹⁷⁾

結局 大茶, 小茶란 東洋三國에 共通되는 茶道用語인 것이다.⁹⁸⁾

이러한 나의 主張은 中華民國의 茶學者도 따르고 있다.

大茶之名 中韓日三國通用 製法是以立夏前後所摘 茶葉較粗大者製成⁹⁹⁾

이 大茶를 靑茶類로 看做하는 것은 醱酵茶인 武夷茶를 大茶라고도 부르기 때문이다.¹⁰⁰⁾

(2) 葉茶(芽茶)

中國에서 葉茶를 마시기 시작한 起源에 관한 明確한 記錄은 없다.

比較的 이른 時代의 記錄으로는 宋나라 蘇軾의 「物類相感志」(總論)에 보이는 芽茶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¹⁰¹⁾

그러나 그 芽茶는 다음과 같은 蘇軾 自身の 證言에 비추어 搗茶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余生漢東 最喜啜茶 閒時常過一二 北人知余喜啜 此 則往往煮以相餉 未嘗不欣然也 其法以茶芽盡許 入少脂麻沙盆中爛研 量水多少煮之 其味極甘腴可愛 蘇東坡詩云 拓羅銅碾棄不用 脂麻白土須盆研者是矣¹⁰²⁾

그러나 南宋時代에는 陸游(1125~1209)가 「安國院試茶」라는 茶詩의 自注에서 「日鑄則越茶矣 不團不餅 而曰炒青 曰蒼鷹瓜 則撮泡矣」라고 하였다.¹⁰³⁾

이것은 陸游의 故鄉인 紹興縣 東南의 日鑄嶺에서 나는 日鑄茶는 團餅茶가 아닌 炒青의 越茶로서 撮泡用이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炒靑綠茶의 撮泡法은 南宋에서 發明된 것이었다.

그 傍證資料로서 趙希鵠의 「調變類編」(1240年 前後)에는 葉茶의 泡茶에 쓰이는 砂壺가 보인다.

茗性宜於砂壺 其嘴務直 一曲便多阻塞 酒注又當別論¹⁰⁴⁾

그리고 이 砂壺가 葉茶用이었다는 또 하나의 証據는 葉茶를 保管하는 錫瓶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茶葉與磁銅等罐 性不相能 性宜錫瓶¹⁰⁵⁾...

元代에는 이미 世祖의 至元 17年(1280)에 末茶와 葉茶가 있었다는 記錄이 傳한다.

元世祖至元十七年 置樞茶都轉運司於江州 總江 淮 荆 南 福 廣之稅 其茶有末茶有葉茶¹⁰⁶⁾

그러다가 葉茶爲主의 風習으로 轉換되는 契機가 된 것이 明나라의 太祖가 洪武 24年(1391)에 백성의 勞力을 덜어주기 위하여 團鑄의 製茶를 禁止시키고 芽茶를 進貢케 하라고 내린 政令이었다.

至洪武二十四年九月 上以重勞民力 罷造龍團 惟採 茶芽以進¹⁰⁷⁾

한편 高麗時代의 葉茶에 관해서는 李齊賢의 茶詩에 보이는 「雀舌」과 元天錫의 茶詩에 보이는 「雀舌茶」를 葉茶라고 하는 見解와 類似한 主張이 또 있다.

첫째로 鮎貝房之進은 李齊賢의 茶詩에 보이는 「雀舌」을 「芽茶」라고 主張하던 끝에

支那에서도 煎茶(葉茶의 日本式 表現... 引用者 註)가 盛行된 것은 元代 以後였으므로 이것으로써도 大概는 推測된다. 또 「雀舌」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나 麗末 李穡의 「代書答開天行齋禪師寄茶走筆」이라는 題名의 詩에 「靈芽味自眞」이라고 한 이 「靈芽」도 「雀舌」로서 煎茶(葉茶... 引用者 註)쪽이었던 것이지만¹⁰⁸⁾...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研膏茶만을 言及한 宋나라 慧善의 「宣和北苑貢茶錄」에 보이는 「靈芽」도 葉茶가 아니거니와,¹⁰⁹⁾ 더욱 確實한 것은 金나라의 敎授였던 李俊民이 「靈芽」를 읊은 詩題 自體가 固形茶를 가리키는 「團茶」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新樣團茶

春風傾倒在靈芽 纔到江南百草花
未試人間小團月 異香先入玉川家¹¹⁰⁾

둘째로는 宋나라의 徐鉉(1091~1153)이 남긴 「宣和

奉使高麗圖經」의 「茶俎」條에 보이는 「日嘗三供茶 而繼之以湯 麗人謂湯爲藥」¹¹¹⁾에 관하여 「단차나 말차를 마신 후 잎차를 다려 마신 관심을 전하는 것 같다. 약이라는 끊임 물이 잎차라고 생각된다」¹¹²⁾는 見解가 있다.

그러나 「而繼之以湯」의 「湯」은 當代의 麗·宋·遼·日에 共存하던 喫茶喫湯의 風習을 가리키는 것일 뿐 葉茶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別稿로서 詳細히 論及할 생각이다.

結局 末茶를 마신 뒤에 葉茶를 마신 史例는 東西古今에도 없는 것이다.

實際로 麗末에 葉茶를 마신 史料는 名筆이자 判厚德府事를 지낸 韓愔(1333~1384)가 읊은 다음의 茶詩에 보이는 「芽茶」이다.

嚴光大禪師寄惠芽茶
採茶誰復海邊皆 惟有嚴光品最佳
我自妙蓮知此味 煩師遠寄慰予懷¹¹³⁾

要 約

高麗時代에 六大茶類의 傳來 與否와 國內에서의 製茶 與否를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史實이 確認되었다.

1. 研膏茶가 傳來되어, 國內에서도 生産되었다.
2. 香茶는 白茶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推定된다.
3. 醞茶와 大茶는 靑茶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4. 高麗末期에는 綠茶인 葉茶도 飲用되었다.

참고문헌

59. 金明培, 「中國의 茶道」, 124~125面.
60. 上揭書, 146面.
61. 上揭書, 180~181面. 高橋忠彥, “中國茶名物考②”, 「月刊百科」(1988, 8), 32~33面.
62. 布目潮風, 中村 喬, 「中國의 茶書」(東京: 平凡社, 1976), 210面.
63. 陳香, 「茶典」(台北: 國家出版社, 1981), 128~129面.
64. 陳祖槃, 朱自振, 前揭書 217面.
65. 白牧, 前揭書 146面.
66. 李齊賢, 「益齋亂藁」卷四, 134~136面.
67. 崔啓遠, “東國의 茶風流 二千年”, 「盆栽壽石」(1980, 5·6), 37面.
68. 全完吉, 「韓國化粧文化史」, 193面.
69. 鮎貝房之進, 前揭書 376~378面.
70. 金明培, 「中國의 茶道」, 147面.
71. 馮應榴, 「蘇文忠公詩合註」卷三十一, 19面.
72. 陳祖槃, 朱自振, 前揭書 17, 42面.
73. 全完吉, 「韓國化粧文化史」(서울: 悅話堂, 1987), 193面.
74. 金明培, “茶詩의 誤譯”, 「茶心」 第三輯(1988, 9), 30面.
75. 金相鉉, 「韓國의 茶詩」(서울: 太平洋博物館, 1987), 66面.
76. 金明培, 「韓國의 茶詩鑑賞」(서울: 大光文化社, 1988), 72面.
77.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十三, 9~10面.
78. 鄭麟趾, 金宗瑞, 前揭書, 卷三十, 74面.
79. 卞季良, 「春亭詩集」卷之四, 21面.
80. 石田幹之助, 「東亞文化史叢考」(東京: 東洋文庫, 1973), 757面.
81. 陳祖槃, 朱自振, 前揭書, 287面.
82. 東國譯經院(編譯), 「한글대장경」 159(서울: 東國譯經院, 1977), 52, 214面.
83. 劉源長, 「茶史」卷一, 11面.
84. 力新(編), 前揭書 165面.
85. 上揭書 164面.
86. 高橋忠彥, “中國茶名物考②”, 「月刊百科」(1988, 8), 32面.
87. 高橋忠彥, “中國茶名物考①”, 「月刊百科」(1988, 5), 20~22面.
88. 陳祖槃, 朱自振, 前揭書 364, 375面.
89. 高橋忠彥, “中國茶名物考②”, 前揭書(1988, 8), 31面.
90. 高橋忠彥, “中國茶名物考①”, 前揭書(1988, 5), 21面.
91. 鄭麟趾, 金宗瑞, 前揭書 卷九十六, 107面.
92. 上揭書 卷九十四, 118面.
93. 鮎貝房之進, 前揭書 361~363面.
94. 文一平, 前揭書 391面.
95. 波多野善大, 「中國近代工業史의 研究」(東京: 東洋史研究會, 1961), 94面. 靜岡縣茶業協會(編), 「茶業寶典」(靜岡: 靜岡縣茶業協會, 1950), 464面.
96. 上揭書 461面.
97. 金明培, 「韓國의 茶詩鑑賞」(서울: 大光文化社, 1988), 87面.
98. 金明培, 「韓國의 茶道文化」(東京: へりかん社, 1983), 92面.
99. 張宏庸, 「茶的歷史」(台灣: 茶學文學出版社, 1987), 135面.
100. Robert Morrison,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67), p.467.
101. 陳祖槃, 朱自振, 前揭書 248面.
102. 上揭書 270-271面.
103. 亮順師(編), 「中國名茶漫談」(永和: 武陵出版社, 1983), 25~26面.
104. 陳祖槃, 朱自振, 前揭書 277面.
105. 上揭書 278面.
106. 上揭書 541面.
107. 上揭書 316面.

108. 鮎貝房之進, 前掲書 378面.
109. 金明培, 「中國의 茶道」, 150面.
110. 白牧(編), 前掲書 211面.
111. 徐兢「宣和奉使高麗圖經」 171面.
112. 全完吉, 前掲書 187面.
113. 韓情「柳巷集」 27面.